

대학의 변화와 학문의 윤리

미국의 세계적인 석학 에드워드 쉘즈(Edward Shils) 교수는 대학의 장래에 관한 국제협의회의 한 연구보고서에서 “진리의 발견과 전수는 학문 연구자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가장 분명한 목표이며 엄격히 통제된 방법을 통해 진지하고 중요한 것을 발견하고 가르치는 일이 대학의 가장 독특한 과제”라고 했다. 이 말은 얼핏 교육과 연구라고 하는 대학의 본질적인 기능을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들리지만 보고서의 전체적인 맥락은 강의와 연구활동 속에서 이루어지는 진술들이 가능한 한 ‘진리’여야 한다는 학문의 윤리적 측면과 교수활동의 변함없는 가치, 대학의 고유한 책임과 의무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진지하고 중요한 것(진리)을 발견(연구)하고 가르치는(교육) 일이 엄격하고도 면밀한 자기통제 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론은 단순하면서도 개방과 국제화의 전환기에 처해 변화의 몸살을 앓고 있는 오늘날의 대학과 대학인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21세기를 앞두고 과학문명의 혁명적인 발달 속에서 경제력 위주의 새로운 국제질서를 형성해가고 있는 오늘날의 세계는 국가와 개인, 사회적 하위체제들로 하여금 생존에 필요한 변화와 적응의 논리를 수용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변화의 질과 내용이 자극히 세계체제순응적이고 탈가치적이며 선택의 여지가 없이 동시적이고 일반적이란 점 또한 매우 특징적인 현상이 되고 있다.

인지의 발달이 멈추지 않는 한 사람사는 세상은 변하기 마련이고 역사의 진행과정이란 다음아닌 시대적인 변화상의 투영이며 발전 혹은 진보의 메커니즘은 변화에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이와 같이 국가와 개인, 크고 작은 조직의 생존 자체와 결부된 조건의 변화는 대학에서도 예외가 아니며 대학을 둘러싼 변화는 생각보다 빠르고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 대학이 수행하고 있는 교육과 연구수준의 질적 향상과 국제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가 개별대학의 존립에 관한 문제가 되고 있음은 물론, 국가경쟁력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상황조건이 그렇고, 점진적이며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자율의 보장을 담보로 한 대학간 경쟁 구도와 적자생존의 정책적 요구가 그러하며, 대학에 대한 사회적 기대, 고등교육에 관련된 수요와 공급의 변화, 대학 내부로부터 분출하는 다양한 변화의 욕구들이 그것이다.

변화의 논리가 생존문제에까지 결부된 것이라면 그에 따른 대응논리도 스스로 변하는 데에서 찾을 수밖에 없음은 자명한 이치다. 지난 반세기 동안에 누적되어온 양적 규모중심의 팽창과 그에 반한 교육투자 소홀로 교육여건이 두루 허약해진 우리나라의 대학들이 최근 들어 앞다투어 장단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기업의 경영기법과 리엔지니어링 개념을 도입하는 등 외형적인 교육여건의 개선과 대학의 전체적인 내적 충실도 제고에 나름대로의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조건의 변화에 대한 적응의 필요성을 자각한 데서 비롯된 긍정적인 현상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정도와 방법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대학들이 변화의 메커니즘에 집착하고 있는 사실만큼은 분명한 이 시점에서 우리는 왜 변해야 하고 무엇이 어떻게 변



중앙대 총장 김민하

화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근원적인 성찰의 시간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변화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압력과 당위성에 밀려 자칫 대학 고유의 책임감이나 목표의 지향성 또는 변화하는 내용과 방법의 타당성이 상실되어서는 안 되겠기 때문이다.

세상에는 변하지 않는 것도, 변해서는 안 되는 것도 있으며, 변하는 것일지라도 무턱대고 변하는 게 아니라 궁극적인 목표와 일관된 방식이 있다. 대학이 존재하는 한 그 존재이유의 중심에는 학문이 자리하고 있고 학문의 지향성 목표가 있을 것이며 학문이 추구해야 할 보편의 가치와 윤리가 있으리란 것도 그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대학의 변화가 지향하는 목표는 이와 같은 학문 고유의 가치체계에 내재된 보편의 윤리를 손상하지 않으면서 외적인 변화요소들을 수용하고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의 세계적인 석학 에드워드 쉴즈의 말을 빌면 학문의 윤리는 “지식의 실질적 또는 가상적 소유에 의해 영향을 받는 역할과 행동, 지식의 추구하고 전수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의무들의 총합이며 어떠한 전문가(학자)도 기본적인 윤리적 의무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것이다.

변화는 동서간 냉전체제의 이념적인 대립구조의 퇴장과 더불어 새로운 이념적 대체제가 요구되고 있는 오늘날과 같은 신국제질서형성기에서는 필연적이며 당위적인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국가를 비롯한 각각의 사회적 체제들과 집단 또는 개인에게 있어서의 고유한 역할과 책임이라든가 의무 자체가 변하는 것은 아니다. 이론적인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개방과 국제화란 국가든 개인이든 세계 속의 일원으로서 오히려 그러한 책임과 의무가 보다 강화되고 확대됨을 의미한다고 해석해도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것이다. 변화의 시대, 어떠한 변화의 메커니즘에서도 누구나 법적 도덕적 권리와 의무관계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변화의 시대일수록 변하지 않는 가치와 행동의 기준이 있어야 한다. 변화와 그에 수반되는 혼돈과 상실의 시대일수록 학자에게 필요한 것은 지식인으로서의 사회적 영향력을 올바르게 견지하는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쉴즈가 말했듯이 분명한 목표 아래서 엄격하게 통제된 방법으로 연구하고 교육하는 학문의 윤리부터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대학의 고유한 기능이나 책임과 관련한 일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생활과 사회적인 활동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학문의 기본적인 의무와 윤리에 충실한 가운데 변화란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인간이 향유하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수단이요, 생존과 적응의 필요조건에 불과한 것임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데에서 올바른 변화의 방향과 적절한 방법이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